

핫 미디어 시대에 쿨 미디어를 다시 본다

김의규 | 계원조형예술대 전자출판과 교수

흔히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신세대, x세대, n세대 등으로 표현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세대란 약 30년을 하나의 구분으로 하는 연령층, 또는 그 사람들을 뜻한다. 이런 구분에 익숙한 중·장년 특히 노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의 세대교체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런 변화는 청소년층에서도 공감하는 바, 그들끼리도 1~2년 차이의 또래를 두고 요즘 애들이 어찌고저 찌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만 실소가 터져나온다. 한편으로 귀엽기도 하지만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간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과거에는 일상생활의 작은 행위 하나에도 정신적 가치를 따지고, 우주나 영혼 같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명제와 심층적 사유를 목말라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정보의 홍수와 그 충격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면 과장일까? 아무튼 여기서 두 부류의 계층이 형성된다. 하나는 그런 과다 정보 환경에 친숙한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그렇지 못한 계층일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가리켜 '핫 미디어' (hot media) 시대라 한다. 곧 하나의 목적을 겨냥하

고, 그것을 위해 모든 감각기관을 동시에 자극해야 하는 상업적 전략이 요구되는 시대를 뜻한다. 윤리적이거나 인본적인 평가가 개입할 여지도 없이 다만 그런 시대라고 하는 데 또한 아픔이 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그 단적인 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하는 절대 조건 앞에 시청자는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언젠가 아침 프로그램에서 방송진행자들끼리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의 비극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의 생각이 금금해졌다. 그러나 곧 쓸데없는 일임을 알았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전파를 타는 순간 곧 전체의 생각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극이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 차도 존재할 틈이 없다. 대중과 대중문화는 이렇게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유별나게 굴면 그 흔한 말로 '왕따' 가 될 수밖에 없다.

핫 미디어의 반대 개념은 '쿨 미디어' (cool media)다. 같은 기계적 산물이긴 하나 라디오가 그것이고 책이 대표적일 것이다. 쿨 미디어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눈 또는 귀로써 지각할 뿐이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는 사유의 공간이 형성된다. 정보에 의한 지식의 축적과 기억을 자료로 해 지성이 탄생한다. 각 선진국들도 이 사실 앞에 선 견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최고의 지성들을 앞세워 인문교육과 기초과학을 강조한다. 아이러니다. 초과학으로 무장한 그들이 동시에 꿈광내 나는 책을 눈앞에 들이미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보와 지식은 손뚱 만한 칩 하나로 충분하지만 그 정보와 지식을 운용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사실을 그들이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첨단의 기계문명을 거부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확장되기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주체의 인성과 지혜와 슬기로움이 시시때때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읽고 읽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309호 | 2001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박천홍

기자 강성민 김장근

박옥순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 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